



元과 餘命

우리는 “한 해의 계획은 원단에 있다”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아쉬움과 미련을 간직한 채 바쁘게 살아 온 한 해를 제야의 종소리에 묻어 버리고 기대 속에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곤 한다.

그래서 새해 첫 아침해를 바라보며 성공적인 한 해를 염원하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쪽 땅끝이나 동해바다, 혹은 높은 산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대체로 젊은 시절에는 새해

계획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보랏빛 꿈에 젖는 경우가 많지만 세월의 흐름을 오래 겪은 인생일수록 한해 계획은 구체적이고 범위가 좁아지게 마련이며 심지어는 아무 의미나 준비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느 조직이건 간에 이제는 한 해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움으로 쌓인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통계청은 구랍 ‘2005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란 국민들이 신고한 사망신고 자료를 기초로 연령별 사망률을 산출해 평균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다. 생명표에 따르면 40세 남자의 예상되는 수명, 즉 기대여명(期待餘命)은 36.7년이고 여자의 경우는 43.1년이다. 50세 남자는 27.8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여자는 33.6년이며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19.6년이고 여자는 24.3년으로 발표됐다.

새해 벽두부터 여명을 논하는 것이 좀 ‘거시기’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느 조직이건 간에 이제는 한 해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움으로 쌓인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하긴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기업경영이나 노후대책 등도 지금까지 살아 온 현재의 나이 앞에서 예상되는 기대여명을 놓고 인생의 마스터플랜을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2007년을 전망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올 해의 인쇄업계 경기가 지난해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아질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북핵 문제, 원화강세, 정치적불안정, 자금난, 경기침체, 대선 등 어느것 하나

인쇄경기를 끌어 올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인쇄시장 규모로 볼 때 선거용 인쇄물이 인쇄시장을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희박한 실정이다.

곳곳에 악재의 지뢰밭만 널려있고 평탄한 호재는 찾아보기 어려워 안타까운 심정이다.

일반경제계가 겪는 불황의 평균치보다 10~20%의 고통을 숙명적(?)으로 더 깊어져야 하는 인쇄인들의 시커멓게 타는 가슴을 어찌하랴? 일상생활 속에서 늘 회자되지만 잊고 지내는 평범한 진리가 있다.

“오는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데는 위아래가 없으며, 혼자서 왔다가 갈때는 어차피 혼자서 떠나야 하며 빈손으로 왔다가 세상을 하직 할때 역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외통수 길이다.

어느 원로인쇄인의 “인쇄업계가 언제 편한 때가 있었느냐”는 말씀을 위로 삼으면서 그래도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는 인쇄업계를 기대해 본다.

오세익 · 편집주관